# 한국현대사의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3주차. 이승만(2) 1강. 부정적 평가(1)





- 1.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서의 남북분단의 책임, 친일파 청산실패는?
- 2. 남북분단의 책임, 친일파 청산 실패 평가의 객관적·주관적 측면은 무엇인가?



- 1. 이승만 정권 하의 남북분단의 책임, 친일파 청산 실패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.
- 2. 이 둘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, 그 정권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1강 부정적 평가(1)





### 생각해 볼 문제

- 13
  - 나는 지금까지 남북분단의 책임, 친일파 청산 실패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?
  - 역사적 평가에 대한 어떤 한 면만을 강조할 때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?

- ✓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;
  - →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·영국·소련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
  - ➡ 제2차 세계대전 뒤의 일본 점령 지구에 대한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얄타회담에 따른 한국의 독립 문제를 거론함
  - ➡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에 대해 찬탁과 반탁을 놓고 좌·우 세력이 크게 대립



- ✓ 이듬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;
  - ➡ 소련 측은 '모스크바 3상회의 협정 지지 세력만 통일 임시정부에 참여할 자격을 주자'는 주장
  - 미국 측은 '모든 정치세력을 통일 임시정부에 참여할 자격을 주자'는 주장을 함
  - ➡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어, 무기한 휴회



- ✓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이승만은 남한 각지를 순회 하는 도중 전북 정읍에서 연설을 하게 됨
- ☑ 정읍 발언(井邑發言)은;
  - 미군정기에 이승만이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 1946년 6월 3일에 전북 정읍에서 한 발언
  - ➡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을 강조
- ✓ 이런 발언으로 단독정부론이 공식화되었고, 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도로 분단 초래



#### ◈ 반론: 통일정부의 가능성 희박

- ➡ 북한의 소련군정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인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킴
- ➡ 현수막에 "(임시인민위원회)는 우리의 정부이다."라고 써서 내걸어 북한 스스로가 정부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을 공표함
- ➡ 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3월 5일에는 소위 '무상몰수, 무상분배'라는 토지개혁도 단행하여 사실상 정부기능도 하고 있었음
- → 여러 가지 공산주의식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남북은 이미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로 진행되어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것은 남한마저 공산화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져 가고 있었음
- ➡ 이런 상황에서 단독정부론이 공식화된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나온 것임



- ☑ 친일파는;
  - ➡ 한말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,
  - ➡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(危害)를 가하거나,
  - ➡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<del>들을</del> 총칭해서 하는 말
- ✓ 그러므로 현재 일본에 있는 지인(知人)과 가까이 지낸다거나 일본 인들과 사업차 거래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님
- ✓ 친일파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본의 한국 침략에 편승하여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에게 고통을 가한 무리들을 이름



- ✓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행한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률 제정
- 1 처음은 미군정기인 1947년 7월에 〈과도입법의원〉에서 상정한 '민족반역자·부일협력자·간상배 조사위원회법'이었으나 군정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음
- 2 두 번째는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〈제헌국회〉에서 '반민족행위처벌법'을 만들어 거의 1년간 시행하였으나 실패

- ☑ '반민족행위처벌법'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
- 1 일본정부와 통모(通謀)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
- 2 일본정부로부터 작(爵)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
- 3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·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

☑ '반민족행위처벌법'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

- 습작(襲爵)한 자, 중추원 부의원(府議院)의 고문 또는 참의, 칙임관 이상의 관리
- 밀정행위,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
-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자,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
- 도·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 일제에 아부하여 죄질이 현저한 자
-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죄질이 현저한 자
-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
- 종교·사회·문화·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 저작과 지도를 한 자
-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



- ✓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청산이 아닌, 정부 요직이나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친일파를 중시함으로써, 역사적 청산에 실패함
- ✓ 이승만은 오랜 망명생활로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하였고, 해방 직후 가졌던 좌익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우익, 친일파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
- ✓ 귀국 초기 대동단결론, '선통일, 후친일파 청산'을 주장하였으며, 권력 유지를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친일 관리를 대거 등용



- ✓ 〈반민족행위처벌법〉은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법률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(반민특위)가 구성
- ✓ 그러나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담화를 발표하거나 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는 등 활동을 방해
- ✓ (반민족행위 처벌법안)이 발의되자 이승만은 '친일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 것은 공산당이다'라고 말함
- ☑ 결국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 사건과 6·6 특경대 습격사건 등이 결정타가 되어 해산
- ◈ 반론: 국민국가 건설에 있어 행정적 효율성·지속성



## 학습정리

-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는 남북분단의 책임, 친일파 청산 실패 등이 있다.
- 이런 평가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, 이에 대한 반론 도 존재한다.